

日本은 지난해 수입원유의 공급선을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조정해 왔다. 첫째 환율, 그리고 둘째 油價가 日本측에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여 갔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선 조정 움직임은 산유국과 LNG생산국은 물론 최근에는 휘발유를 비롯한 모든 석유제품 생산국

하고 있고 에너지 수출국들은 日本 시장을 표적으로 치열한 수출 경쟁을 펴고 있어 日本에 대해 낙관론적 견해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측도 있다.

石油은 여전히 제1의 에너지

日本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 이던 50년대와 60년대의 경제적 기적을 이룩한데는 中東지역 ·도입원유가 원동력의 구실을 했다. 日本의 석유수입은 1950년 3만4천b/d에서 1980년 360만b/d로 30년 사이에 100배 이상 증가했다. 73년의 제1차 석유위기 이래 석유정책의 주목표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石油 의존도를 감축시키자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제철등 산업은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했고, 에너지 절약도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원자력의 비중이 증대되었고, 특히 LNG소비가 엄청나게 증가, 세계 전체 소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 석유점유율의 감소 부분을 거의 잡아 먹었다. 그렇지만 石油은 여전히 日本의 수입총액의 4분의 1 이상을, 그리고 에너지 코스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 油價의 하락과 円貨의 강세현상은 일단 日本국내 제조업, 전력회사 그리고 석유산업에 호재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通産省 발표에 따르면 85년 日本의 원유수입은 1억9천833만 Kl(342만b/d)로 7.6%가 감소했다(표-1 참조). 中東원유 수입은 240만b/d로 7.3%가 감소했으나, 총원유수입 중

低油價 時代와 日本의 石油産業

들에까지 광범하게 영향을 미쳤다. 국내수요는 계속해서 통제되어 왔으며 석유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편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美國·日本등 양대 석유수입국의 비중이 절대화 해가고 있는 현재 세계 에너지분야에서 日本의 영향력은 아무리 크게 평가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막강한 것이다. 양대 수입국중 美國은 엄청난 규모의 예산적자로 다수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반면, 日本은 85년도 무역수지에서 550억달러나 되는 흑자를 기록하는 호황을 누렸다. 円貨의 대 달러환율은 지난해 4/4분기에만 무려 20%의 상승을 기록했고 올들어 油價가 엄청나게 떨어져 금년도 무역흑자는 720억 달러까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美國과 유럽이 日本에 수입 확대 압력을 가

(表 - 1) 日本의 원유도입추이 (단위 : 천B/D)

	1984	구성비 (%)	1985	구성비 (%)	증감율 (%)
UAE	562.3	15.2	727.4	21.3	129.0
사우디아라비아	1 001.2	27.1	593.7	17.4	59.1
오만	231.5	6.3	301.8	8.8	130.0
이란	257.4	7.0	246.3	7.2	95.5
中立地帶	219.7	6.0	221.5	6.5	100.5
카타르	220.5	6.0	198.9	5.8	90.1
이라크	14.5	0.4	71.6	2.1	429.6
쿠웨이트	81.5	2.2	44.4	1.3	54.3
中東 計	2 588.2	70.2	2 405.7	70.4	92.7
인도네시아	483.3	13.1	389.2	11.4	80.3
中共	220.7	6.0	220.8	6.5	99.8
말레이시아	109.5	3.0	113.4	3.3	103.3
브루나이	80.2	2.2	54.5	1.6	67.8
濠洲	3.5	0.1	35.2	1.0	1 001.0
소련	1.5	0.0	2.6	0.1	173.9
아시아/極東計	898.6	24.3	815.7	23.9	90.7
멕시코	160.1	4.3	141.7	4.1	88.3
베네수엘라	16.4	0.4	10.3	0.3	62.6
中南美	176.5	4.8	152.0	4.5	86.9
이집트	15.7	0.4	42.5	1.2	270.7
알제리	9.0	0.2	-	-	-
아프리카 計	24.7	0.7	42.5	1.2	172.1
총계	3 688.0	100.0	3 417.7	100.0	92.4

70.4%를 차지, 여전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中東지역의 UAE 원유수입이 전년도보다 29%가 증가함으로써 40.9%가 감소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日本의 석유 트레이드 구조는 한해 중에도 엄청난 변화와 변태양상을 띠어 12월에는 UAE로부터의 수입이 427만b/d로 1년전보다 48.3% 격증한 반면, 사우디 원유 도입량은 219만b/d로 52.7%가 격감하는 급변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구태어 이유를 따지자면 사우디가 공식가격 체제에 너무나 오

래 머물러 있는데다 日本과의 네트백 원유공급거래 타결을 지체시킨 때문이다. 사실상 三菱石油와의 6개월 기한의 10만b/d 그리고 共同石油와의 7만b/d 등 2건의 네트백 거래가 금년 2월에 들어와서야 매듭을 지었다. 日本과의 네트백 원유 가격 공식은 유럽 스파트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정제비 2달러(배럴당)와 0.60달러(배럴당)의 차등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월까지의 3개월중 월별 원유 도입량은 일본구메회사들이 동남아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 비축

을 다시 강화함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비축은 10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최대 LNG 수출국이었던 인도네시아로부터의 LNG 수입은 원유수출량 감소에 의한 역작용으로 증가했다. LNG가격이 油價에 연동된다고는 하지만, 油價보다는 하락폭이 완만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말레이시아와 中共에 빼앗긴 석유 판매시장을 회복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日本은 아시아太平洋 지역 국가들과의 국제수지상으로도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석유 제품수입이 자유화됐다고는 하나, 앞으로 이 지역에서 수입하게 될 석유 제품을 계산해도 수지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수출초과분에서 지역투자 형태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불균형 해소에 얼마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극도로 침체했던 이란산 원유수입은 연말께에 크게 회복되어 12월에는 50만b/d로 79년이래 최대 수입량을 기록했다. 日本은 또 10월에 가동을 시작한 사우디 경유 파이프 라인을 통해 15만b/d의 이라크産 원유수입도 재개했다.

OPEC로부터의 原油수입 감소는 규모상으로는 작지만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85년 한해사이에 전체 원유수입에서 차지하는 OPEC의 점유율은 77.7%에서 73.3%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OPEC의 對日 원유수출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시도가 中東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올들어 1-2월 두달사이에 치열하게 추진되었다. 현재 日本은 값싼 북해원유를 대량 구매하고 있

으며, 이중 일부는 쿠웨이트 원유와 스위프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北海 원유를 유럽지역의 쿠웨이트 하류부분 가동원료로 쓰는 대신 국내에는 쿠웨이트 원유로 바꿔 들여오므로써 수송경제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는 것이다.

製品輸入수요의 증가

휘발유수입은 금년 1월 문호가 완전 개방되기는 했으나 지난해 日本의 제품수입 자유화 논쟁에서 가장 요란하게 논의되었던 쟁점이었다. 그러나 日本은 지난 해 11월에 이미 실질적인 製品수입확대를 실행에 옮겨 종전 수입품목인 나프타와 중질연료유외에 등유와 경유까지 대량 수입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등유 가격양등을 유발시키면서 싱가포르 정제업자들의 공급력을 달리게 한 바 있다. 中東지역의 수

● 製品輸入의 증대에 따라 精油工場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円貨강세에 따른 영업외 수익에도 불구하고 低油價에 의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결손을 기록하고 있다 ●

출전용 정유공장들이 쏟아내는 제품의 공급 흐름도 円貨강세의 조류를 따라 地中海 지역으로부터 수에즈 동부지역으로 이동해오는 현상을 뚜렷이 하면서 日本 국내 정유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石油化學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7-9 월 중 22%, 그리고 10월에 39%의 수입증가를 기록했다. 지난 해 초부터 10개월간 석유화학부문은 에틸렌으로 환산, 수출이 32만3천톤이었던 데 비해 수입은 40만6천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3%의 수입증

가를 기록했다. 지난 해는 수입이 처음으로 수출을 초과한 해이기도 했다. 사우디와 싱가포르에서 에틸렌 생산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이들 값싼 석유화학 제품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東南아시아 시장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구매 열풍은 12월들어 진정기미를 보이면서 수입자유화 발효에 따라 시작된 휘발유 수입에 대한 관심 집중으로 대체되고 있다. 한 석유거래 그룹은 해외휘발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16달러 수준으로 국내 가격보다도 싸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당초 수입자유화에 반대했던 석유회사들까지 휘발유수입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제품 수입자유화 조치에 따라 일본은 동남아 지역 최대의 제품수입국이 되면서 자체 정유공장의 고도화 추진도 불가피해질 것이어서 이 지역내 제품무역의 선도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表-2〉에서 보면 원유정제량과 제품생산량이 수입원유 물량의 변동에 따라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경유가 증가세를 보이고 휘발유가 미량이나마 늘어난 반면 전체 규모상으로는 소규모이지만 제트유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병커 C유는 약 20%가 줄어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表-2) 日本의 原油정제·재고·생산추이

(단위: 천kl)

	1984	구성비 (%)	1985	구성비 (%)	증감율 (%)
원유정제량	195 073	-	181 033	-	92.8
재 고	26 058	-	25 483	-	97.8
제 품 :					
휘 발 유	36 383	20.2	36 435	22.0	100.1
나 프 타	11 670	6.5	10 351	6.2	88.7
제 트 油	3 740	2.1	4 327	2.6	115.7
灯 油	26 841	14.9	24 248	14.6	90.3
輕 油	24 782	13.8	25 468	15.3	102.8
重質연료유	76 441	42.5	65 117	39.2	85.2
A	19 201	10.7	18 959	11.4	98.7
B	2 281	1.3	2 058	1.2	90.2
C	54 959	30.5	44 100	26.6	80.2
제 품 計	179 858	100.0	165 945	100.0	92.3

精製施設 감축 계획

日本도 정유공장 시설능력을 감축시키는 문제에서는 여타 국가들이나 메이저들과 마찬가지로 과감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1983년 9월 총정제능력을 600만b/d에서 500만b/d로 100만b/d 감축한 것이 지금까지 유일한 대규모 감축이었다. 당당시의 가동률은 51%에 불과했으며 85년 10월의 가동률도 적정가동률 80%에서 20%가 모자라는 약 60%에 불과했다. 通産省은 금년중 최소한 70만b/d의 시설을 우선 폐기하고 앞으로 3년사이에 100만b/d를 추가 폐기해서 시설능력을 400만—430만b/d로 감축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몇몇 대규모 정유공장이 이미 폐쇄 대상으로 선정돼 있다. 세계 여타 정유시설과 비교해

볼때 나머지 플랜트들도 대다수가 고도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이내믹하고 융통성 있는 제품무역정책이 계속되고 세계경제가 유리한 국면으로 지속되어 간다면 고도화 과업을 보다 적절한 시기가 올때까지 뒤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다.

石油産業전반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기업합병과 업무제휴는 판매 및 1차 유통부문의 재래식 구조에 능률성을 부여함으로써 과당경쟁을 완화시키고 정제구조상의 정비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日本石油連盟이 발표한 85회계연도 전반기(4—9월) 중 10대 석유회사의 경영분석에 따르면, 油價하락과 연료유를 중심으로 한 5.4%의 판매량 감소에 따라 매출액이 7.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円貨 강제

에 따른 차익이 371억円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사는 총 572억円에 이르는 결손을 보았다고 石油連盟은 분석하고 있다.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에 67억円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열경쟁의 유발은 마치 범죄행위나 같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휘발유 시장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석유회사들은 지난해 10월 제품가격 인상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석유회사들이 소매가격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공장도 가격에 가까운 값으로 팔 수 밖에 없는 주유사업계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관측통들은 円貨 강제현상이 지속되는 한 日本의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 (Petroleum Economist)

産油國動向

사우디, 製品의 契約販賣를 위한 새 價格방식 수립 延期

石油製品의 契約販賣를 위한 새로운 市場連繫 價格방식을 도입하려는 사우디의 계획 수립이 한달 이상 늦어질 것 같다. Petromin은 당초에 5월 1일부터 이 방식을 적용하려 했으나 보다 세밀한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수립을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사우디 政府는 Mobil과 Royal Dutch/Shell 그룹으로 하여금 사우디의 2대 정유공장인 안부와 주바이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石油製品中 Petromin의 몫을 계속 판매하도록 촉구했다. 그동안 사우디는 製品의 固定價格, 또는 公式價格을 대신할 수 있는 契約販賣價格方式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하루 25만배럴 능력의 이들 2개 정유공장에서부터 생산되는 製品

의 契約價格은 B/L Date로부터 10일간의 5개 油種 平均價格에 의해 결정될 것인데, 5개 유종가격은 Platt's Oilgram紙에 발표되는 價格에 따를 것이다. 그런데 Petromin은 이러한 契約價格에 모종의 프리미엄을 붙일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고객들은 이러한 계획을 환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Petromin과 期間契約를 체결한 회사는 없다. 이 계획에 의하면 Petromin은 北西유럽의 現物價格에 근거 서구 고객들에게 製品을 판매하며, 極東의 고객에 대해서는 페르시아만, 北西유럽, 싱가포르, 日本 등의 現物價格을 조합한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